

MOVE

MOVE
BY STORY
VOL. 05

20130130

당신을 흥드는 일상의 여행, 오늘도 무브하세요!

© new adventist

INDEX

TRAVEL	손미나의 여행사전 - 남다른 비주얼의 도시, 캐나다 퀘벡 여행 친구 - 오감이 행복한 퀘벡, 이적과 함께 걸을까
PEOPLE	어쩌면 당신의 이야기 - 도착은 언제나 모험의 시원(始原)
MUSE	도착을 위한 매뉴얼

MOVE by STORY는 우리를 움직이게 하고 변화시키는 세상의 모든 이야기를 발견해 소개합니다.
MOVE by STORY는 세상 사람 모두가 자기만의 이야기를 갖게 되길 꿈꿉니다.

MOVE by STORY VOL.05

발행 브랜드 스토리텔링 컴퍼니 (주)봄바람
www.bombaram.net / 02-3142-0588
bombaram@bombaram.net
http://www.movebystory.com

발행일 2013년 1월 30일

발행인 김상아

스토리텔링	김상아, 선민정, 김예니, 김정예, 김보미
디자인	김광혁(R2D2)
일러스트	이예결, 오현걸
사진촬영	김초희 외

도움주신 분들 여행 팟캐스트 <손미나의 여행사전> www.facebook.com/travelpodcast
출판사 이야기나무 www.yiyaginamu.net
R2D2 visual www.facebook.com/r2d2visual

MOVE by STORY를 만나는 방법

- 매월 10일, 20일, 30일 <손미나의 여행사전> 팟캐스트와 PDF가 함께 업로드됩니다.
4페이지 팟캐스트 구독방법을 참고해주세요.
- 동네서점 thanksbooks www.thanksbooks.com에서 무료로 배포하고 있습니다.
총대점 : 서울시 마포구 서교동 367-13 더컬러리 1층 / 가로수길점 : 서울 강남구 신사동 534-18 5F



한 달에 세 번,
귀로 들고 상상으로 떠나는
프리미엄 여행 팟캐스트

손미나의 여행사전 여행지 테마



MARAIS

영감

1회 with 윤종신

창조적 영감으로 가득 찬
프랑스 파리 마레



PRAGUE

낭만

2회 with 희극여배우들

낭만의 도시
체코 프라하



LOWER MANHATTAN

변화

3회 with 원더걸스 예은

변화의 에너지가 넘치는
미국 뉴욕 로어 맨해튼



VENICE

비밀

4회 with 유희열

비밀을 간직한 도시
베니스

QUEBEC CITY

도착

5회 with 이적

출발과 도착이 공존하는 곳,
캐나다 퀘벡 주.
매일 새로운 사람들의 도착지가 된다

손미나의 여행 사전

남다른 비주얼의 도시

캐나다 퀘벡

QUEBEC CITY, CANADA

스토리텔러 김보미 — ddang@bombaram.net

1967년 크리스마스 이브,
프랑스 중부의 소도시 몽트리샤르에
FBI 요원 칼 헨리티(툼 행크스)가 도착한다.
거룩한 밤 인쇄소에서 위조수표를 찍고 있는 희대의 사기꾼,
프랭크 에버그네일(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
눈이 펄펄 내리는 프랑스 마을에서
칼은 프랭크의 손목에 수갑을 채우는 데 성공한다.

영화 <캐치미 이프 유 캔> 中

스티븐 스필버그의 영화 <캐치미 이프 유 캔>의 한 장면이다. 감독은 감정을 고조시키기 위한 장치로 주인공이 붙잡히는 영화의 중요한 씬을 눈 내리는 프랑스 마을로 선택했다. 그런데 이 장면은 프랑스 현지에서 촬영된 게 아니다. 바로 캐나다 퀘벡에서 촬영한 것. 헐리우드에서 유럽까지 날아가지 않아도 될 정도로 프랑스보다 더 프랑스다운 풍광이 펼쳐지는 곳, 퀘벡. 하지만 드라마틱한 반전은 따로 있다. 자연풍광, 예술작품, SF를 넘나드는 남다른 비주얼의 도시 퀘벡의 다양한 다섯 가지 매력을 담았다.



<손미나의 여행사전> 팟캐스트는 매월 10, 20, 30일 3회 발행됩니다.

손여사 페이스북 - <http://www.facebook.com/travelpodcast>

아이폰 사용자 - <https://itunes.apple.com/kr/genre/podcast>

안드로이드 사용자 - <http://www.podbbang.com>



LA FRESQUE DES QUEBECOIS



퀘벡의 매력포인트 1

공감각적 색채 예술, 프레스코화

퀘벡시티에는 수많은 벽화들이 그려져 있다. 프레스코 기법으로 그려진 퀘벡의 벽화들은 주로 사람들의 일상생활을 담고 있는데 그 모습이 제법 정교하여 멀리서 보면 실제 모습과 비슷해 보인다. 퀘벡의 겨울이 너무 춥다 보니 창을 내지 않은 건물들이 많은데, 400년 전부터 이런 빈 벽에 창문을 그려 넣기 시작한 데서 프레스코화가 발달되었다. 퀘벡의 벽화 중에서 가장 화려한 프레스코화는 'La Fresque des Québécois'라는 5층 규모의 초대형 벽화다. 1990년에 캐나다와 프랑스 출신 화가 12명이 100일 동안 작업했는데, 자세히 들여다 보면 상당히 정교하게 그려져 있다. 또한 벽화와 바닥의 무늬가 교묘하게 연결되어 있어서 보는 이에게 더욱 재미있고 신기한 느낌을 전한다. 이 벽화에는 과거와 현재, 사계절의 풍경, 그리고 역사적인 인물들까지 담겨 있어 '벽 투어' 하나만으로 하루를 다 보내게 될지 모른다.

실제 사람을 찾아보세요

이제 곧 이곳에 곧 : 10월





퀘벡의 매력포인트 2

담백한 퀘벡의 맛, 푸틴

언뜻 보기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프렌치 프라이 포테이토와 비슷하지만, 주로 토마토케첩에 찍어 먹
는 감자튀김과는 양념부터가 다르다. 일반적으로 푸틴은 길쭉하게 썬 감자튀김과 치즈커드(우유에 산을
넣어 응고시킨 것)와 그레이비 소스라는 바비큐 소스를 넣어 만든다. 푸틴은 퀘벡의 어느 시골 식당에서
한 손님의 특별한 주문에 의해 탄생하였다. 시골 요리사는 감자튀김과 치즈 덩어리를 섞어 달라는 주문
을 받고 완성한 요리에 프랑스로 '혼합물'이라는 뜻인 '푸틴'이라는 이름을 붙였다. 푸틴은 튀긴 감자에
어떤 재료를 얹느냐에 따라 종류가 나뉘는데, 원조 푸틴은 앞서 말했듯 그레이비 소스를 올린 것이고, 입
맛에 따라 토마토와 사우크림, 또는 소시지를 넣을 수도 있다. 퀘벡에서는 메이플 시럽을 넣는 등 26가지
의 푸틴을 맛볼 수 있다.

퀘벡의 매력포인트 3

현실 속 SF, 언더그라운드 시티

몬트리올에는 SF영화에서만 존재하는 거대한 지하도시가 있다. 바로 언더그라운드 시티다. 언더그라운드 시티를 지하철과 쇼핑몰의 결합으로만 생각한다면 오산이다. 여의도 면적의 1.5배 크기, 길이가 32km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규모를 자랑하기 때문이다. 이곳에는 1,700개의 회사와 45개의 은행지점, 7개의 호텔과 2개의 대학, 2개의 백화점을 비롯해 1,600개의 상점과 200개의 레스토랑, 34개의 영화관과 극장이 있다. 몬트리올의 겨울은 영하 30도를 밑도는 경우가 많아서 언더그라운드 시티가 발달하게 된 것. 120개의 외부연결통로는 1,600여 세대의 아파트와 올림픽 스타디움에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곳에서만 생활해도 삶이 가능할 정도다. 더구나, 지하도시라고 해서 햇빛을 포기하지도 않았다. 훌륭한 채광시설로 광합성이 가능하니, 언더그라운드 시티 투어만 해도 일주일일 모자를 지경이다.





퀘벡의 매력포인트 4

인류 역사상 가장 훌륭한 볼거리, 태양의 서커스

21세기 공연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창조했다는 평을 들으며 각종 경제서적에 블루오션 전략의 대표적인 성공사례로 등장하는 <태양의 서커스>. 지난 30여 년간 전 세계 1억 명의 사람들이 관람한 <태양의 서커스>는 1984년, 퀘벡의 낙후된 탄광촌에서 시작됐다. 초기 10명이었던 서커스 단원은 현재 40개국 출신, 각기 다른 25가지 언어로 소통하는 3,500명의 글로벌 팀이 되었다. 공연의 하이라이트는 단연 '아트 서커스(art circus)'다. 단순히 기교뿐 아니라 예술적 분위기가 넘치는 서커스를 표방한다. 또한 관람객의 첫 시선을 잡아 끄는 화려한 의상은 부단한 과정을 통해 탄생한 것으로 유명하다. 전속 디자이너가 이끄는 80여 명의 의상팀이 10번 이상 스케치를 수정해가며 완성했으며 옷과 장신구는 물론 신발과 속옷까지 제작한다. 눈이 즐겁다는 말은 이 공연을 위한 말일 것이다.

퀘벡의 매력포인트 5

캐나다의 운명이 시작된 곳, 아브라함 평원

여행자로서 한 나라의 역사가 시작된 곳을 방문하는 것은 매력적인 일이다. 그렇기에 캐나다의 역사가 시작된 아브라함 평원은 꼭 둘러보아야 할 필수 코스다. 상쾌한 바람이 불어 누워서 낮잠을 자기에도 좋은 이곳은 평화로움이란 단어가 무색하도록 한때는 피로 물든 전쟁터였다. 프랑스와 영국이 캐나다를 손에 넣기 위해 대치했던 100년간의 전쟁 중 마지막 전투인 '아브라함 평원 전투'의 장소이기 때문이다. 1759년 9월에 제임스 울프 장군이 이끄는 영국군이 프랑스령 캐나다의 수도인 퀘벡을 함락시키면서 캐나다 전체가 영국으로 편입되어 북미의 주도권이 영국으로 넘어가게 되었다. 그러나 1774년 강화조약 체결 이후부터는 프랑스 문화와 종교를 유지하고 불어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 받아 프랑스 문화의 전통도 함께 이어져 내려오고 있다.



여행 친구 오감이 행복한 퀘벡 이적과 함께 걸을까

스토리텔러 김예니 — nabi@bombaram.net

이름이야 모르는 사람 없는 유명한 곳이지만, 딱히 다녀왔다는 사람은 없는 생소한 여행지 퀘벡. <손미나의 여행사전> 다섯 번째 여행친구는 아주 우연한 기회에 퀘벡을 다녀온 뮤지션이자 작가인 이적이다. 그가 들려주는 여행 이야기, 함께 들으며 상상 속에서 여행길을 걸어보자.

Q. 이적에게 여행이란 무엇인가?

현실을 벗어나 가상 현실 속으로 들어가는 것. 문득 정신을 차려보니 낯선 사람들 사이에 있는 것. 우리의 일상이 현실인 것처럼, 우리가 여행을 가면 그곳의 현지인들이 현실을 살아간다. 여행을 가면 현지인처럼 생활하려고 노력하지만 사실 여행객은 아무리 애써도 관광객일 뿐이다. 현실을 살고 있지만 뭔가 다른 느낌, 그래서 가상현실이라는 느낌이 든다.

Q. 퀘벡은 무슨 사연으로 갔었나?

모 일간지에서 이병을 시인과 김훈, 은희경, 신경숙, 박칼린, 장기하 등 10명의 아티스트가 10곳을 여행하며 함께 글을 쓰는 기행을 기획했다. 내가 가장 마지막 주자였기 때문에 프로젝트 예산이 얼마 안 남아 관광청의 전폭적 지원이 있는 곳으로의 선택이 불가피했다. 보통, 같은 값이면 미국을 간다는 생각들이라 캐나다도 여행 순위에서 살짝 밀리는 경향이 있는데 나도 그랬다. 사전 지식과 기대 없이, 이런 기회로 가보는 것도 좋겠다 싶어서 갔었는데 깜짝 놀랄 일들이 많이 벌어졌다.

Q. 깜짝 놀랄 일이라니, 퀘벡에서 무슨 일이?

경유하는 입국 심사에서 모두 불법체류자로 오인되어 1시간 이상을 체류해 있었다. 퀘벡시의 공식 초청장이 있었는데 그것을 보여주는 것조차 너무 어려웠다. 시종일관 무시당하는 모욕적인 분위기 속에서 제 3세계인으로서 위상을 절감했다. 게다가 첫 숙소인 몬트리올의 호텔에 도착하니 소방차 3대와 함께 투숙객 전원이 밖에 나와 있었는데 전기설비에 문제가 생겨 화재를 대비한다고 했다. 쉬지도 못하고 집만 맡겨 두고 나와 재즈 페스티벌의 공연을 보며 맥주를 마시면서 캐나다와 참 약연이라고 생각했었다.

Q. 퀘벡에서 가장 좋았던 일은 무엇이었나?

처음에 몬트리올 재즈 페스티벌에서 Earth, wind & fire, Seal 등의 공연을 봤다. 그런데 소도시 퀘벡에서도 '퀘벡시티 섬머 페스티벌'이 열린다는 거다. 시골 동네 잔치쯤 되려나 싶어 시큰둥하게 프로그램을 봤는데 사라맥라클란, LMFAO, 스크릴렉스, 본조비, 에어로스미스 등 어마어마한 라인업들이 10일 동안



들어차 있었다. 알고 보니 북미에서 가장 큰 페스티벌이라고. 장소는 아브라함 평원이었고, 8만명이 운집했다. 일정을 조절해 4일 정도 더 머물면서 보고 싶은 아티스트 공연들을 챙겨 봤었는데 아주 좋았다.

Q. 퀘벡에서 기억에 나는 장소가 있다면?

퀘벡시에 세인트로렌스강을 따라 거대한 곡물 창고들이 방치되어 있는데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그런데 어떤 미디어 아티스트의 발상으로 이것이 스크린으로 변신했다. 퀘벡 역사에 관한 감각적인 풀라주 영상이 가로등 스피커에서 흘러나오는 음악과 어우러져 매일 밤 장관이 펼쳐진다. 퀘벡에 간다면 반드시 봐야 할 명물이다.

Q. 퀘벡에서 이것만은 하지 마라

언어와 음식이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가운데 문화가 있기 때문이다. 유럽 여행을 할 때, 독일어권 여행지에서 재료를 살린 최소한의 조리 예 소스가 없는 음식들만 주문장착 먹다가 불어권으로 넘어오는 순간 음식들에 소스가 가미되면서 너무 맛있었던 기억이 있다. 퀘벡 역시 불어권이라 대체로 모든 음식이 맛있다. 그런데 멧돼지, 들소고기는 굳이 먹지 마라.

문화인류학적인 호기심으로 시도하지 않아도 될 육류다. 간단히 설명하자면 질기고, 흠냄새가 나며, 치타가 된 기본이다. 왜 전 인류가 식용 육류를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로 귀멸했는지 알 수 있는 맛이랄까. 만약 먹으려면 동행인은 반드시 평범한 고기를 먹길.

이밖에도 해박한 지식을 곁들여 퀘벡의 숨은 매력을 소개해 주신 이적 씨, 그의 퀘벡 이야기는 여행 팟캐스트 <스미나의 여행사건>을 통해 자세히 들을 수 있다.

▶ 본 인터뷰는 팟캐스트 방송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어쩌면 당신의 이야기 - 탁탁 김홍탁

TACK TALK ; 도착은 언제나 모험의 시원(始原)

스토리텔러 김상아 - baram@bombaram.net

태초에 하나의 도착(到着)이 있었다.
목적지에 도달했다는 안도감도 잠깐,
도착은 언제나 새로운 시대를 여는 문이었고,
한번도 시도하지 않았던 모험의 시원(始原)이었다.
20년 전 우리는 어떻게 살았던가? 2013년 오늘 일상적으로 벌어지는 많은 일들이 20세기 말의 우리에게겐 SF의 한 장면처럼 비현실적으로 느껴졌을 것이다. 인류 역사상 가장 압축적인 변화의 시대를 살면서 그 변화를 빠르게 체감하고, 민감하게 반영해야 하는 광고계의 최전선에 제일기획의 ECD(Executive Creative Director) 김홍탁 마스터가 있다. 그는 국내뿐 아니라 글로벌 세상을 무대로 아날로그와 디지털의 경계 없이 '도착'과 '모험'을 반복하며 커뮤니케이션의 새로운 역사를 써가는 독보적 인물이다.

탁탁(TACK TALK)은 그가 오래 전부터 써온 닉네임이다. 컨셉을 잡고 그것을 실현할 때 나름의 표현법으로 세상과 소통하는 일을 해온 그에게 '탁탁(김홍탁 가라사대)'은 꽤나 잘 어울리는 이름이다. 그런데 언뜻 발랄하고 가벼워 보이는 그 이름 안에는 그가 첫 카피를 쓰던



초년병 시절부터 지금까지 묵직하게 질감하고 실천해온 '사명감'이 담겨 있다. 지금까지 탁독의 광고 인생은 도
착과 시적이 공존하는 '일곱 개의 문'을 지나왔다. 그 여정이 어떠했는지 그 통과한 문을 하나씩 열어 보자.

첫 번째 도착. 입사 1개월만에 쓴 카피가 온 좋게 입봉작이 되었다. 비비안 언더웨어 잡지 광고였다. 설레는
마음으로 잡지 발행을 기다리던 어느 날, 명동에서 대형 현수막으로 내걸린 자신의 광고와 예기치 않게 마주
쳤다. 회열보다는 아찔한 두려움과 책임감이 엄습했다. 광고의 무서운 전파력을 실감하고 사명감을 느꼈다.
카피를 쓰는 사람이 아니라 가치를 만드는 사람이 되어야겠다고 결심했다.

두 번째 도착. 1997년 난생 처음 칸 국제광고제에 갔다. 당시 수상작이던 디젤과 기네스 광고를 보면서 우리
광고 수준에 절망했다. 광고가 철학을 공유하고 국민의식까지 좌우할 수 있음을 발견했다.

세 번째 도착. 광고가 단순히 마케팅 툴이 아니라 시대의 사회문화상을 반영하는 거울임을 인식하고 비평적
관점에서 광고를 정리하고 싶었다. 그 일환으로 우리나라 최초로 '광고평론가'라는 타이틀을 달고 광고비평
집 <광고 대중문화의 제1원소>를 펴냈다.

네 번째 도착. 광고계에 새로운 반향을 일으킨 '안티광고전(Against the Established Ads)'을 열었다. 세계
의 대안 광고로 번지르르한 광고에 따지를 걸고, 자체 검열과 심의 그리고 광고주를 통해 거절된 광고 낙선
전을 통해 광고의 현실을 직시하고 새로운 광고 문법을 제시했다.

TACK TALK

다섯 번째 도착. 일방적인 메시지 전달을 넘어서는 새로운 형태의 광고를 시도했다. 가령 영화 <8mile>에서
영감을 받아 2003년에 진행했던 애니콜 랩 배틀과 댄스 배틀처럼 참여 기반의 캠페인이 그것이다.

여섯 번째 도착. 2005년 이후 디지털이 약진하면서 혁명적인 패러다임의 변화가 일어났다. 한정된 미디어
환경을 벗어나 세상 모든 것이 미디어(Ambient Media)가 되고, 배타적으로 정보를 독점하려는 소유의 문화
에서 진정성을 기반으로 공유가치를 창조하는 CSV(Creating Shared Value)가 중심이 되었다. 기존 광고의
틀을 벗어나 통합적 관점에서 플레이그라운드를 만들고 그곳에 참여해 의미 있는 경험을 한 사람들이 스스
로 구전하도록 가치(Talk Value)를 높이는 방식으로 마포대교 생명의 다리, 미네워터, 실버톡, 히어벌론 캠페
인 등을 진행했다.

일곱 번째 도착. 국경도, 미디어의 경계도 없이 '세상을 이롭게 하겠다'는 단 하나의 의미를 위해 세계의 전
문가들이 엄청난 에너지를 모으고 집단지성의 힘을 발휘했던 빌게이츠재단의 아이디어 공모전 칸 키메라
(www.canneschimera.com)를 직접 진행한 것은 광고인으로서 새로운 세계를 열어주었다. 그곳에서 엄청
난 영감을 얻은 탁독은 지금 막 일곱 번째 문 앞에 도착했다.

탁독이 제안하는 무브꺼리 5

1. 시원(始原)을 찾아가는 여행처럼 자신만의 테마로 혼자 여행하기

광고인이라면 첨단 트렌드를 찾아 다닐 것이라는 고정관념과 달리, 집요할 정도로 모든 것의 시원(始原)을 찾아 다녔다. 가령 한강의 발원지, 공룡의 서식지, 선사시대의 암각화, 오래된 늪과 백두대간을 찾아 혼자 걷고 또 걸었다. 이런 여행을 거듭하면서 존재가 바뀌고 물리적 시간 개념을 넘어 두려움 없이 또 다른 인생을 살게 되었다.

2. 시집 읽기

시집을 읽으면 상상력이 작동하고, 깊이 생각하게 되고, 사물을 꿈꾸는 방법을 알게 된다. 요즘도 신대철 시인의 <무인도를 위하여>는 마음이 흔들릴 때마다 돌아가 다시 펼쳐보는 시집이다.



3. 영화 보기

한 때 매일 한 편씩 영화를 보던 시절이 있었다. 어떤 영화에 매혹되면 그 감독의 모든 영화를 집중적으로 섭렵했다, 그렇게 몇 천 편의 영화를 보면서 스토리텔링의 일개와 종합예술로서 표현의 문법을 익혔고, 또 다른 삶과 세상을 이해하게 되었다.



4. 매년 끈질기게 한 가지 약속 실천하기

많은 사람들이 새해가 되면 거창한 계획을 여러 가지 세우는데, 딱 한 가지 아주 작은 자기와의 약속을 하고 1년 동안 끈질기게 실천해내는 경험을 꼭 하기 바란다. 스스로에 대한 성공경험을 갖게 되어 자신감이 생기고 자기관리에도 엄청난 도움이 된다. (탁독은 마라톤과 축구를 꾸준히 하고 있다.)

5. 수평적인 사고와 오픈 마인드로 경청하기

수평적 사고와 오픈 마인드는 집단지성의 기본 자세다. 나이가 들고 경험이 쌓이면서 많은 사람들이 아집이 강해지고 예단하고 남의 말을 끊어버리고 듣지 않으려는 경향이 있는데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다. 경청을 하면 많은 것을 배우게 되고 생각지도 못했던 일을 해내게 된다.





아직 어딘가에 도착하기에는 조금 이른 나이의 당신에게,

내가 다다르고 싶은 곳이 어디인지 몰라 이리저리 헤매고 있는 당신에게,

이제 다 왔다 싶었지만 또다시 다음을 향해 나아가야만 하는 당신에게.

MUSE

도착을 위한 매뉴얼

스토리텔러 김정예 — puri@bombaram.net

삶은 말한다.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고 언제 도착할지도 모르는 곳을 찾아서 줄곧 걸어야 하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살아라고. 구도자처럼 삶을 수행하듯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잠시 피로를 풀고 목적지를 가늠하고 운이 좋으면 동행자를 만나기도 하는 정류장이 되기를 바라며 '도착을 위한 매뉴얼'을 소개한다.

CAUTION

1. 본 매뉴얼은 검증 기간이 채 30년이 되지 않은 것으로 절대적 신봉을 금한다.
2. 본 매뉴얼은 제작자의 임상시험과 사용자의 부작용을 모아 10년 주기로 업데이트 될 예정이다.
3. 본 매뉴얼을 실천하면서 생기는 부작용에 대해서는 제작자에게 즉각 신고하기를 권한다.

STEP 1. 출발지를 정할 것

여행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흔히 범하는 실수가 있다. 바로 목적지를 먼저 정하는 것이다. 온갖 여행 서적을 뒤적이고, 인터넷에서 얼굴도 모르는 사람의 추천을 맹목적으로 따르기도 하며, 급기야 통장 잔고를 확인해 최저가 티켓을 찾아 결제하고는 마치 그 선택이 온전히 자신의 것인 것마냥 뿌듯해 한다. **여행을 준비할 때 가장 먼저 해야 하는 것은 도착지를 선정하는 것이 아니라 출발지를 정하는 것이다.** 내가 지금 떠나고 싶은 것이 생장갑 만한 방바닥인지, 다람쥐 쳇바퀴 같은 일상인지, 도무지 빛이 보이지 않는 미래인지, 꼬이기만 하는 인간관계인지 등등. 이렇게 출발지는 원주율의 소수점 자리 만큼 끝없이 펼쳐진다. 그 무수한 출발점 중에서 한 가지를 택하고 나면 발걸음이 닿을 곳은 자연스럽게 수면으로 떠오르게 된다.

STEP 2. 동행자를 선발할 것

출발할 곳과 도착할 곳이 정해졌다면 그 다음은 동행자를 골라야 한다. 동행자를 선발 한다는 것은 단순히 함께 한다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다. 눈을 뜨고 있는 순간은 물론 눈을 감고 있는 순간까지 한 공간에서 타인과 숨을 나뉘 쉬는 것 그 자체로도 만만치 않은 일이기 때문이다. 동행자를 선발할 때는 성별과 인원수라는 선택이 존재한다.

먼저, 성별. 아무리 친밀한 사이라 할지라도 동행자가 이성이라면 태생적인 차이 탓에 생기는 약간의 불협화음이 존재할 수 있다. 물론 여행 내내 긴장을 놓치지 않게 해 준다는 장점과 영원히 정복할 수 없는 미지의 세계가 존재한다는 것을 서로를 지켜보며 깨닫는 쾌감을 맛볼 수 있다. 반면 동성과의 여행이라면 가장 원초적인 모습을 공개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단, 상대방의 장점과 단점을 단시간에 뿌리까지 파헤쳐진다는 약점도 존재한다.

다음, 인원수. 사실 동행하는 사람의 수는 중요하지 않다. 동행자가 있다는 것이 중요하다. 여럿이 떠나는 여행은 왠지정말함애 사건, 사고가 끊이지 않겠지만 실령 도착지가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그 소동 속에서 탄생한 추억이 대신하여 만족감을 줄 것이다. 혼자 떠나는 여행도 좋다. 여행의 순간순간마다 과거의 나와 미래의 나를 조우하며 나만의 세계를 총횡무진할 수 있기 때문이다.

STEP 3. 지체하지 말 것

출발지와 동행자가 정해졌다면 이제는 드디어 떠나야 할 때다. 가장 최적의 순간을 기다리거나 혹은나 지금보다 더 훌륭한 동행자가 나타날 것이라는 기대는 접어 두자. 벗어나고 싶은 곳(출발지)과 함께 하고 싶은 동행자를 찾는 동안 우리는 이미 많은 시간을 소요했다. 이 두 가지가 충족되었다면 더는 지체하지 말자. **여행은 시골의 한적한 버스 정류장과도 같아서 아무리 오랫동안 기다려도 하더라도 버스가 도착했을 때 손을 흔들며 세우지 않으면 지나치고 만다.**

STEP 4. 위의 세 가지 단계에 등장하는 여행을 '인생'으로,
동행자를 '동반자'로 바꿔서 읽어볼 것



이야기나무 책 소개



『유럽의 아날로그 책공간』

오래된 책마을, 동화마을, 서점, 도서관을 찾아서
백창화 김병록 지음 | 352쪽 | 15,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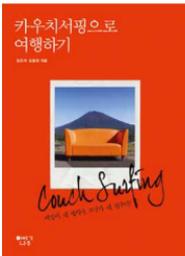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 우수간행물 수상작
충북 괴산 미루마을에 책마을을 일구는 어린이 도서관장
부부가 지도에도 없는 유럽의 책공간을 찾아 떠난
여행과 책에 관한 기록
북 러버, 북 원더러, 북 헌터를 위한 애독서



『PRIDE 현대카드가 일하는 방식 50』

현대카드·현대캐피탈·현대커머셜 지음 | 328쪽 | 13,000원

경제경영분야 장기 베스트셀러
현대카드와 정태영 사장이 직접 밝힌 남다른 성공의 비밀
생각하는 방식, 일하는 방식, 인재를 대하는 방식의
차이가 바꾼 10년의 노하우 공개
경영자, 직장인, 기업인사담당자, 취업준비생들의 필독서



『카우치서핑으로 여행하기』

세상이 내 집이다, 모두가 내 친구다!
김은지 김종현 지음 | 280쪽 | 15,000원

카우치서핑 국내 공식 첫 가이드 북(www.couchsurfing.org)
인류에 대한 무한한 신뢰를 바탕으로 조건 없이
집을 공유하고, 명함보다 서로의 스토리를 교환하는
신인류의 혁신적인 여행법, 카우치서핑에 대한 친절한 안내서



『이야기 테라피』

성장과 치유를 위한 힐링 스토리 24
이시스 지음 | 이장섭 그림 | 380쪽 | 17,000원

이야기가 지닌 놀라운 치유의 힘, 이야기가 운명을 바꾼다.
심리학을 전공한 저자가 심리치유와 상담 분야에서 10년 이상
치유력을 검증한 6가지 테마의 24가지 힐링스토리
영성가들과 독자들이 극찬한 이야기 치유 실천 가이드